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김태후 | 연구위원
taehoo82@krei.re.kr

지정훈 | 제주대학교 조교수
sanchunly@jejunu.ac.kr

2025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KEY MESSAGE

- ☑ 농가소득 확대 속 농업소득 정체·이전소득 의존도 상승·5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취약성 확대

SUMMARY

- 농가소득은 10년간 46.9% 증가했으나 농업소득은 정체, 이전소득이 농가 소득 증가를 견인
-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률은 33.4→29.3%로 하락
-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용 부채 부담 빠르게 증가
- 농업 수익성 회복, 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농의 상환 부담 완화 등 부채 위험 관리 필요

01 농가소득 변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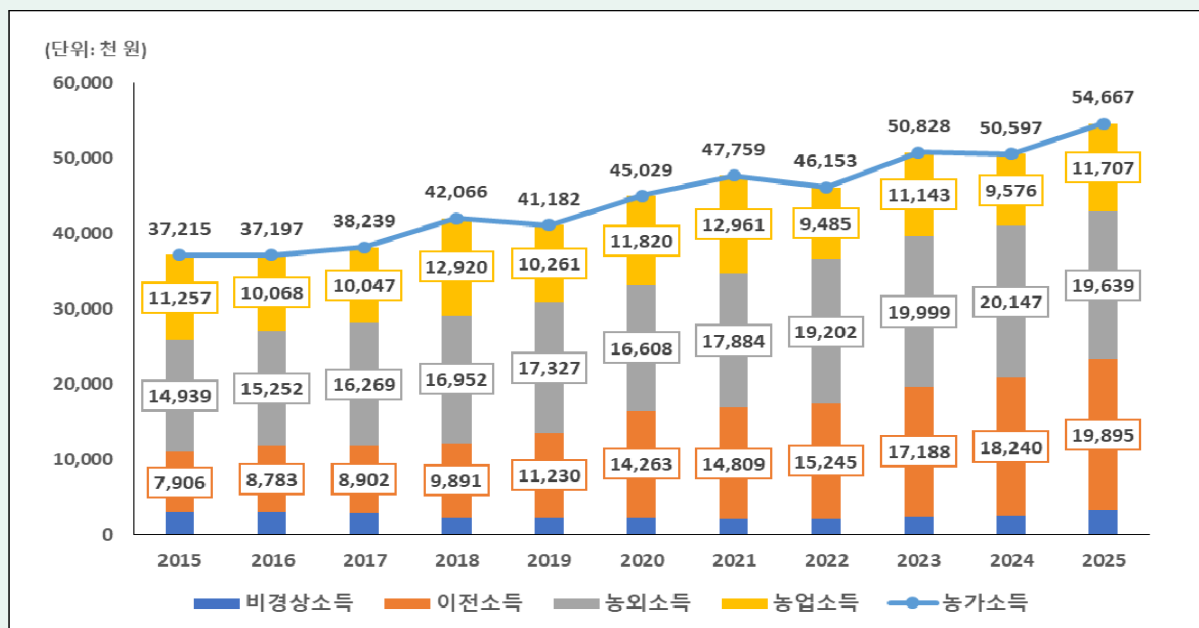


2015~2025년 농가소득 추세¹⁾

Ⅰ 농업소득 비중 감소, 이전소득 비중 확대

- 2015년 농가소득은 3,722만 원에서 2025년 5,467만 원으로 46.9%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126만 원에서 1,171만 원으로 정체하였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30.2%(2015년)에서 21.4%(2025년)로 8.8%p 감소하였음.
- 농업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40.1%에서 35.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대규모는 1,494만 원에서 1,964만 원으로 31.5% 증가하였음.
- 이전소득 비중은 2015년 21.2%에서 2025년 36.4%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5년부터는 농가소득 원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절대규모도 791만 원에서 1,990만 원으로 151.6% 증가하였음. 공익직불제 시행(2020년), 공적보조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²⁾

〈그림 1〉 농가소득 구성 추이(2015~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1) 농가경제조사는 5년 주기로 표본을 개편하며(2018년, 2022년 개편·이듬해 적용), 개편 시점 전후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2) 2020년 직불제 개편으로 종전 변동직불금(농업 잡수입으로 농업소득에 산입)과 고정직불금(이전소득)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어 전액 이전소득으로 계상됨. 2020년 전후 농업소득·이전소득의 시계열 비교 시 이러한 계정 변경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

Ⅰ 대부분 영농형태에서 농가소득 증가, 농업소득 변화는 영농형태별로 상이

- 2015~2025년 농가소득은 과수 92.0% 증가, 축산 11.0% 증가 등 변동폭에 있어 영농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농업소득은 영농형태별 차이가 더욱 커짐. 과수 농가의 농업소득은 1,602→3,206만 원으로 100.1% 증가함. 반면, 논벼(-7.7%)와 축산(-8.9%)은 농업소득이 감소하였고, 채소는 11.7% 증가에 그침.
- 논벼와 축산 농가에서 농업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업외·이전소득 확대가 농업소득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보임.

Ⅱ 대부분 영농형태에서 농업소득 비중 하락

- 과수를 제외한 모든 영농형태에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하였음. 특히 논벼(32.7→19.3%)와 채소(43.4→31.4%)에서 큰 폭의 하락이 관찰됨. 반면 과수는 농업소득 비중이 47.1%에서 49.1%로 소폭 상승함.
- 이전소득률은 모든 영농형태에서 증가하였음. 논벼(35.8→57.9%), 채소(29.5→51.8%) 등에서 이전소득률이 농가소득의 절반을 넘어섰음.

〈표 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2015~2025년)

단위: 천 원, %

영농형태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논벼	2015	25,588	8,375	32.7%	4,731	18.5%	9,169	35.8%	3,314	13.0%
	2025	39,963	7,729	19.3%	5,395	13.5%	23,121	57.9%	3,717	9.3%
과수	2015	34,039	16,020	47.1%	4,114	12.1%	9,897	29.1%	4,008	11.8%
	2025	65,347	32,055	49.1%	4,298	6.6%	23,472	35.9%	5,521	8.4%
채소	2015	27,001	11,726	43.4%	4,544	16.8%	7,957	29.5%	2,775	10.3%
	2025	41,730	13,101	31.4%	4,195	10.1%	21,606	51.8%	2,828	6.8%
특용작물	2015	15,281	2,499	16.4%	2,979	19.5%	7,974	52.2%	1,828	12.0%
	2025	33,545	235	0.7%	9,479	28.3%	21,958	65.5%	1,873	5.6%
화훼	2015	26,981	9,875	36.6%	7,317	27.1%	6,222	23.1%	3,567	13.2%
	2025	39,190	12,775	32.6%	8,465	21.6%	15,131	38.6%	2,819	7.2%
일반발작물	2015	23,576	8,164	34.6%	4,256	18.1%	8,978	38.1%	2,178	9.2%
	2025	41,468	6,648	16.0%	7,241	17.5%	24,695	59.6%	2,884	7.0%
축산	2015	79,649	58,353	73.3%	8,847	11.1%	9,312	11.7%	3,136	3.9%
	2025	88,388	53,146	60.1%	9,075	10.3%	22,265	25.2%	3,903	4.4%
기타	2015	72,133	50,972	70.7%	6,986	9.7%	10,731	14.9%	3,443	4.8%
	2025	39,637	16,998	42.9%	3,537	8.9%	17,901	45.2%	1,201	3.0%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경지 규모별 농가소득 변화

I 모든 규모에서 농가소득 증가

- 2015~2025년 소농(0.5~2.0ha)³⁾의 농가소득은 61.6%⁴⁾, 중농(2.0~5.0ha)은 62.7% 증가하여 고른 성장세를 보였음.
- 0.5ha 미만 영세농의 농가소득도 3,286→4,587만 원으로 39.6% 증가하였음. 다만 증가폭은 다른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대농(5.0ha 이상)은 구간별 차이가 컸음. 5.0~7.0ha는 57.0% 증가한 반면 7.0~10.0ha는 30.2%, 10.0ha 이상은 6.6% 증가에 그쳐 규모가 클수록 증가율이 낮아졌음. 특히 10.0ha 이상 농가는 2018년 1억 3,076만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5년 8,828만 원까지 하락함.

I 경지 규모 간 격차 부분적 완화

- 영세농(0.5ha 미만)의 농가소득은 2015년 10.0ha 이상 대농의 39.7% 수준에서 2025년 52.0%로 격차가 줄어들었음. 다만 이는 영세농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대농의 소득 정체로 인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중농 대비 영세농의 농가소득 비율은 2015년 72.2~77.1%에서 2025년 60.7~67.6%로 하락하여, 중농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음.
- 영세농의 농업소득은 2015년 303만 원에서 2025년 224만 원으로 26.2%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이전소득은 762→1,792만 원으로 135.1% 증가하여 영세농 농가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견인하였음.
- 그 결과 영세농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2%에서 2025년 4.9%로 낮아졌고, 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3.2%에서 39.1%로 상승하였음. 영세농에서 농업 본업의 가계 기여도가 작아지고 공적이전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3) 공익직불제의 면적 기준을 참고하여 0.5ha 미만을 영세농(소농직불금 면적요건 0.5ha 이하), 0.5~2.0ha를 소농(면적직불금 1구간), 2.0~5.0ha를 중농(2구간), 5.0ha 이상을 대농(3구간)으로 구분함. 면적직불금 2·3구간의 실제 경계는 6ha이나 농가경제조사 공표 구간의 제약으로 5ha를 경계로 사용함.

4) 경지 규모별 2015~2025년 농가소득 증감률 단순 평균 기준.

〈표 2〉 경지 규모별 농가소득 변화(2015~2025년)

단위: 천 원, %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0.5ha 미만	2015년	32,860	3,034	18,989	7,624	3,213
	2025년	45,874	2,240	22,822	17,922	2,890
	증감률	39.6%	-26.2%	20.2%	135.1%	-10.1%
0.5~1.0ha 미만	2015년	32,420	7,280	14,811	7,470	2,859
	2025년	51,589	8,299	21,934	18,532	2,825
	증감률	59.1%	14.0%	48.1%	148.1%	-1.2%
1.0~1.5ha 미만	2015년	34,313	9,494	14,297	7,381	3,140
	2025년	54,390	16,813	13,237	18,985	5,355
	증감률	58.5%	77.1%	-7.4%	157.2%	70.5%
1.5~2.0ha 미만	2015년	34,859	13,794	10,522	7,251	3,292
	2025년	58,253	19,423	14,591	20,326	3,912
	증감률	67.1%	40.8%	38.7%	180.3%	18.8%
2.0~3.0ha 미만	2015년	42,614	20,183	11,732	7,601	3,098
	2025년	67,905	26,960	14,397	22,681	3,868
	증감률	59.3%	33.6%	22.7%	198.4%	24.9%
3.0~5.0ha 미만	2015년	45,516	22,052	11,596	9,093	2,775
	2025년	75,584	31,732	14,539	24,722	4,590
	증감률	66.1%	43.9%	25.4%	171.9%	65.4%
5.0~7.0ha 미만	2015년	62,117	35,205	12,445	10,962	3,505
	2025년	97,520	41,381	20,150	32,535	3,455
	증감률	57.0%	17.5%	61.9%	196.8%	-1.4%
7.0~10.0ha 미만	2015년	76,910	43,525	18,247	12,365	2,773
	2025년	100,110	43,508	20,305	34,361	1,935
	증감률	30.2%	0.0%	11.3%	177.9%	-30.2%
10.0ha 이상	2015년	82,835	42,949	18,060	16,654	5,172
	2025년	88,279	26,809	14,188	42,816	4,465
	증감률	6.6%	-37.6%	-21.4%	157.1%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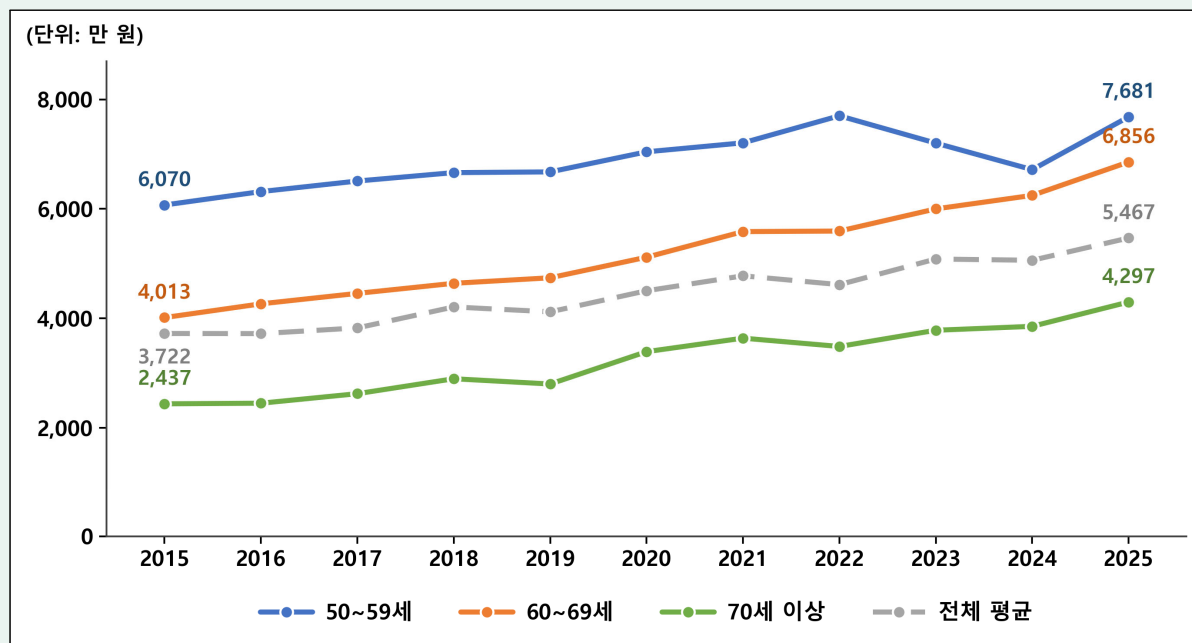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

I 고령층의 낮은 농가소득

- 2015~2025년 농가소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음. 50~59세 6,070→7,681만 원(+26.5%), 60~69세 4,013→6,856만 원(+70.8%), 70세 이상 2,437→4,297만 원(+76.4%)으로 고령층의 증가율이 전체 평균(3,722→5,467만 원, +46.9%)을 크게 웃돌았음.
- 70세 이상 농가소득은 전체 평균의 65.5%(2015년)에서 78.6%(2025년)로 격차가 다소 좁혀졌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은 구조는 유지되었음.

〈그림 2〉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추이(2015~2025년)



주: 50세 미만은 2023년부터 39세 이하와 40~49세를 통합 집계하여 2022년 이전과 직접 비교가 어려우므로 증가율 비교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02 소득 원천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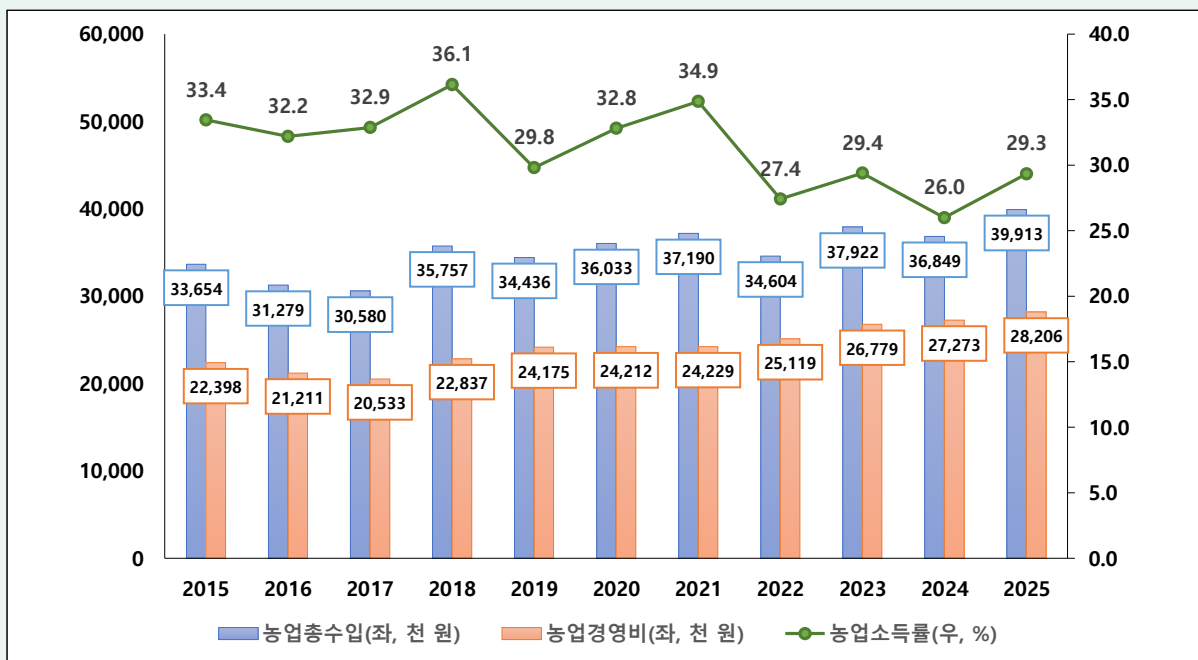


농업소득

Ⅰ 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률⁵⁾ 하락

- 2015~2025년 농업총수입은 3,365→3,991만 원으로 18.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업 경영비는 농업총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25.9%)하여 농업소득은 사실상 정체되었음.
- 그 결과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5년 29.3%로 4.1%p 하락하였음. 2018년 36.1% 고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 속 장기적으로 하락하며, 농업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농업경영비 증가액은 재료비(877→1,133만 원, +256만 원)가 가장 컸고 경비(+202만 원), 노무비(+123만 원)가 뒤를 이었음. 다만 증가율은 노무비가 84.9%로 재료비(+29.2%)·경비(+16.6%)를 크게 상회하여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음. 농촌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 농작업 대행료 인상 등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됨.

〈그림 3〉 농업총수입·경영비·농업소득률 추이(2015~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5)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

I 경지 규모별 농업소득률 상이

- 농업소득률은 5.0ha 이상 구간에서 9~13%p 하락한 반면, 0.5~5.0ha 구간은 +1.8~-7.3%p로 변동이 완만하였음. 5.0~7.0ha 구간은 2015년 41.0%로 농업소득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으나 2025년 28.2%로 낮아짐. 10.0ha 이상 구간은 2025년 20.1%로 농업소득률이 가장 낮은 구간으로 나타남.
- 이는 대농에서 농업총수입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경영비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임. 10.0ha 이상은 농업총수입이 3.0% 증가에 그친 반면 농업경영비는 23.3% 증가하였고, 5.0~7.0ha도 총수입(+70.8%)보다 경영비(+107.7%)가 크게 늘었음. 반면 1.0~1.5ha는 총수입(+71.3%)과 경영비(+68.6%) 증가율이 비슷하여 수익성이 유지되었음. 영농 규모 확대가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표 3〉 경지 규모별 농업총수입·경영비·농업소득률 추이(2015~2025년)

단위: 천 원, %

경지규모	연도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0.5ha 미만	2015	9,688	6,654	31.3%
	2025	10,007	7,767	22.4%
0.5~1.0ha 미만	2015	26,266	18,985	27.7%
	2025	28,076	19,777	29.6%
1.0~1.5ha 미만	2015	29,895	20,400	31.8%
	2025	51,209	34,396	32.8%
1.5~2.0ha 미만	2015	42,139	28,345	32.7%
	2025	63,962	44,539	30.4%
2.0~3.0ha 미만	2015	54,552	34,370	37.0%
	2025	90,633	63,673	29.7%
3.0~5.0ha 미만	2015	62,590	40,539	35.2%
	2025	97,748	66,016	32.5%
5.0~7.0ha 미만	2015	85,884	50,679	41.0%
	2025	146,663	105,283	28.2%
7.0~10.0ha 미만	2015	118,954	75,429	36.6%
	2025	159,247	115,739	27.3%
10.0ha 이상	2015	129,130	86,181	33.3%
	2025	133,054	106,245	20.1%

주: 5.0ha 이상 구간은 표본 농가 수가 적어 연도 간 변동성이 크므로 두 시점 비교 해석에 유의.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I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률 상이한 변화

- 과수 농가의 농업소득률은 2015년 36.9%에서 2025년 45.2%로 8.3%p 상승하여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총수입이 4,338→7,098만 원(+63.6%)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영비 증가율(+42.3%)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축산 농가의 농업소득률은 35.7%에서 26.0%로 9.7%p 하락하여 수익성 악화를 보였음. 농업총수입은 1억 6,330→2억 420만 원(+25.0%)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경영비가 1억 495→1억 5,106만 원(+43.9%)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음.
- 논벼와 채소 농가의 농업소득률은 각각 5.0%p, 4.1%p 하락하여 전체 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음.

〈표 4〉 영농형태별 농업총수입·경영비·농업소득률 추이(2015~2025년)

단위: 천 원, %

영농형태	연도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논벼	2015	25,039	16,664	33.4%
	2025	27,174	19,445	28.4%
과수	2015	43,384	27,364	36.9%
	2025	70,984	38,929	45.2%
채소	2015	35,309	23,582	33.2%
	2025	44,982	31,881	29.1%
특용작물	2015	16,835	14,336	14.8%
	2025	7,715	7,479	3.0%
화훼	2015	72,927	63,053	13.5%
	2025	85,151	72,376	15.0%
일반발작물	2015	19,709	11,545	41.4%
	2025	28,702	22,054	23.2%
축산	2015	163,304	104,950	35.7%
	2025	204,203	151,057	26.0%
기타	2015	92,344	41,371	55.2%
	2025	58,517	41,518	29.0%

주: 특용작물·화훼·기타는 표본 농가 수가 적어 연도 간 변동성이 크므로 두 시점 비교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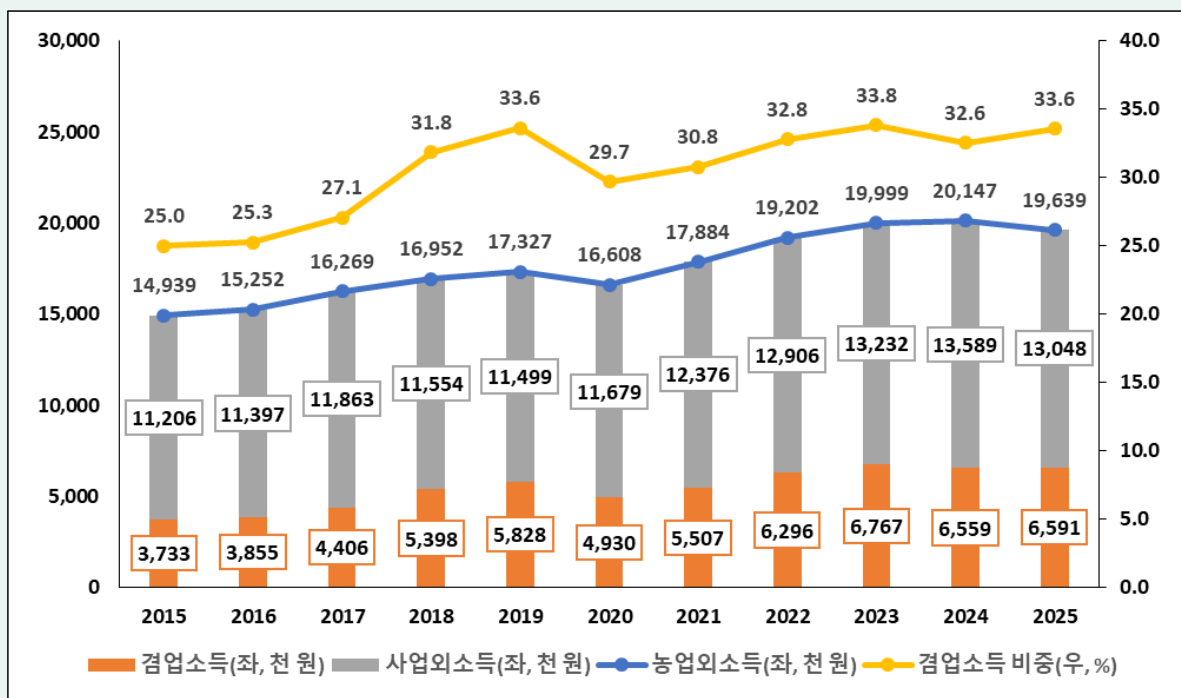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농업외소득

Ⅰ 사업외소득이 주된 원천이나 겸업소득이 빠르게 성장

- 2015~2025년 농업외소득은 1,494→1,964만 원으로 31.5%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사업외소득은 1,121→1,305만 원으로 16.4% 증가에 그친 반면, 겸업소득은 373→659만 원으로 76.6% 증가하여 농업외소득 증가를 주도하였음.
-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 비중은 2015년 25.0%에서 2025년 33.6%로 8.6%p 상승하였음. 농가가 농업 이외의 사업(제조·도소매·음식숙박·관광 등) 경영을 통해 소득을 다각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 농업외소득 구성 추이(2015~2025년)



주: 겸업 비중=겸업소득÷농업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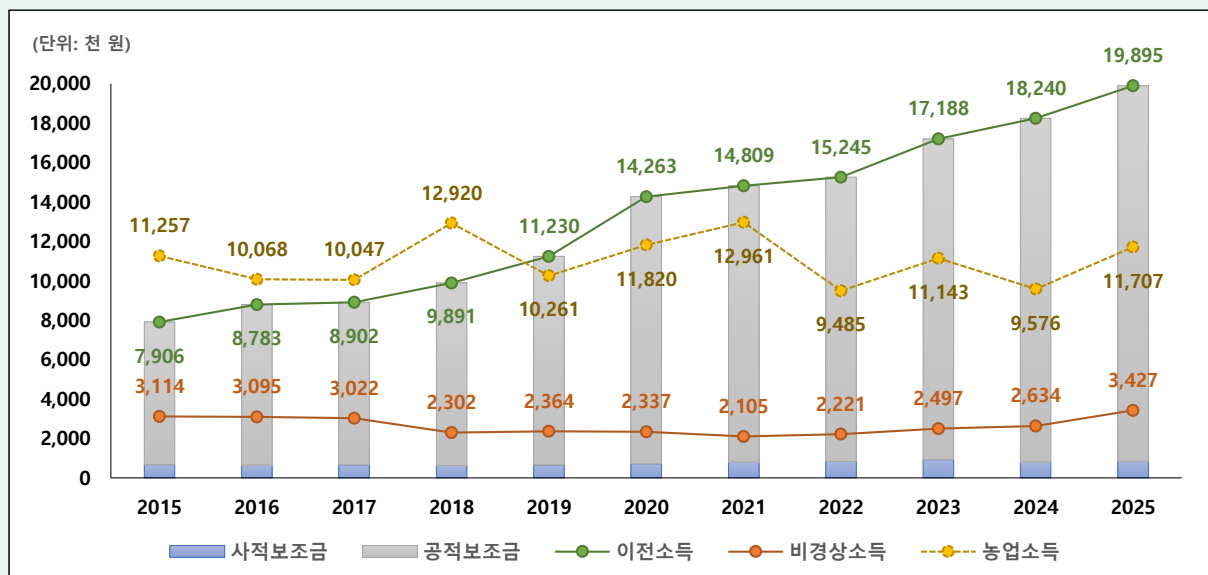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이전소득

I 이전소득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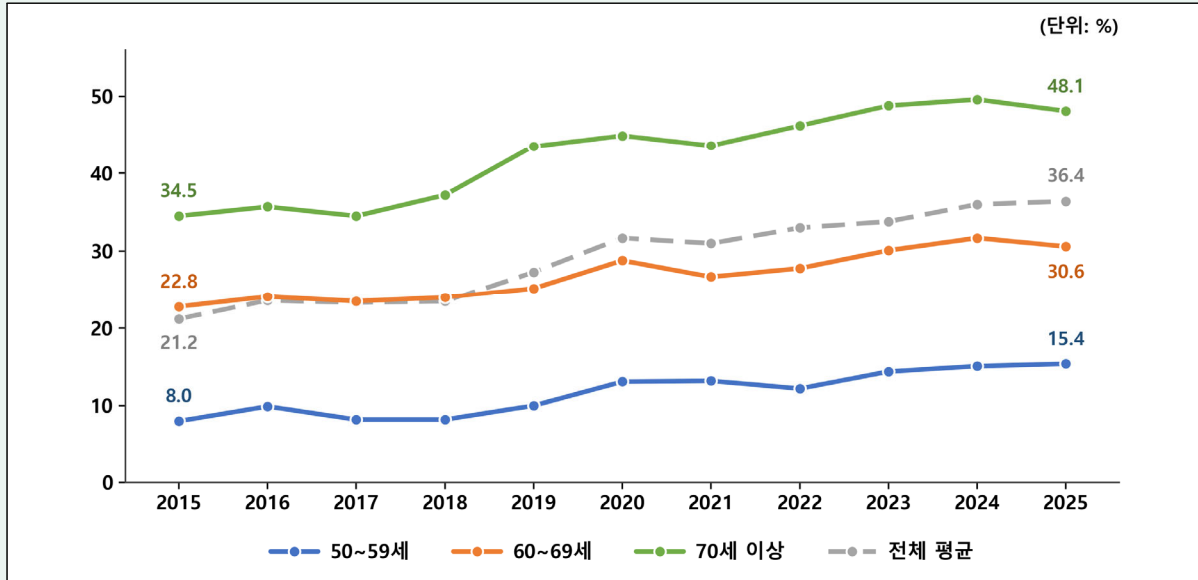
- 2015~2025년 이전소득은 791→1,990만 원으로 151.6% 증가하여 농가소득 원천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음. 특히, 2019~2020년 사이 1,123→1,426만 원(+27.0%)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0년 5월 공익직불제 시행 및 공적보조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1.2%에서 36.4%로 15.2%p 상승하였음. 경영주 연령별로도 50~59세(8.0→15.4%), 60~69세(22.8→30.6%), 70세 이상(34.5→48.1%) 전 연령대에서 이전소득 비중이 상승하였음. 특히 70세 이상 농가는 상승폭이 13.6%p로 가장 컸음. 전체 평균의 상승에는 고령 농가 비중 확대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전·점업별로도 전업(30.5→47.1%), 1종점업(19.7→38.1%), 2종점업(13.1→23.9%)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상승하였음. 전업농가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외소득이 적어 전체 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비경상소득은 2015년 311만 원에서 2025년 343만 원으로 10년간 큰 변화 없음.

〈그림 5〉 이전소득·비경상소득 추이(2015~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그림 6〉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중 추이(2015~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I 공적이전 의존 심화

- 2015년 이전소득(791만 원)은 농업소득(1,126만 원)의 0.70배에 머물렀으나, 2025년 이전소득(1,990만 원)이 농업소득(1,171만 원)의 1.70배에 달하여 농업소득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음.
- 2019년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처음 추월한 이후,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거치며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음. 이전소득 중 공적보조금 비중은 2015년 91.5%에서 2025년 95.7%로 4.2%p 상승하여 농가의 이전소득 증가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03 농가 자산·부채 구조 변화



농가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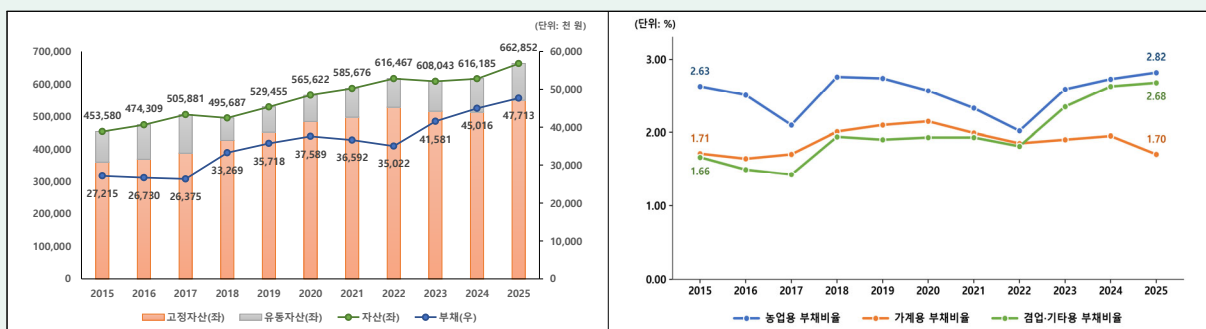
Ⅰ 부채비율 소폭 상승

- 2015~2025년 농가자산은 4억 5,358→6억 6,285만 원으로 46.1%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농가 부채는 2,722→4,771만 원으로 75.3% 증가하여 자산 증가율의 약 1.6배에 달함. 그 결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00(2015년)→7.20%(2025년)로 1.20%p 상승하였음.
- 다만 농가의 부채비율(7.2%)은 일반 가구(16.8%)⁶⁾의 절반 이하로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농가자산 증가는 대부분 고정자산(+53.3%)에서 발생함. 토지가격 상승과 시설·기계 등 영농 자본투자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됨.

Ⅱ 부채 성격 변화

- 가계용 부채비율은 1.71(2015년)→1.70%(2025년)로 사실상 변화가 없는 반면, 농업용 부채비율은 2.63→2.82%(+0.19%p), 겸업·기타용 부채비율은 1.66→2.68%(+1.02%p)로 상승하였음.
-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가계용이 아니라 농업용·겸업·기타용 부채에서 비롯되었음. 생활자금 보다 영농 및 농외사업 관련 자금 조달 수요가 농가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7〉 농가 자산·부채 및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2015~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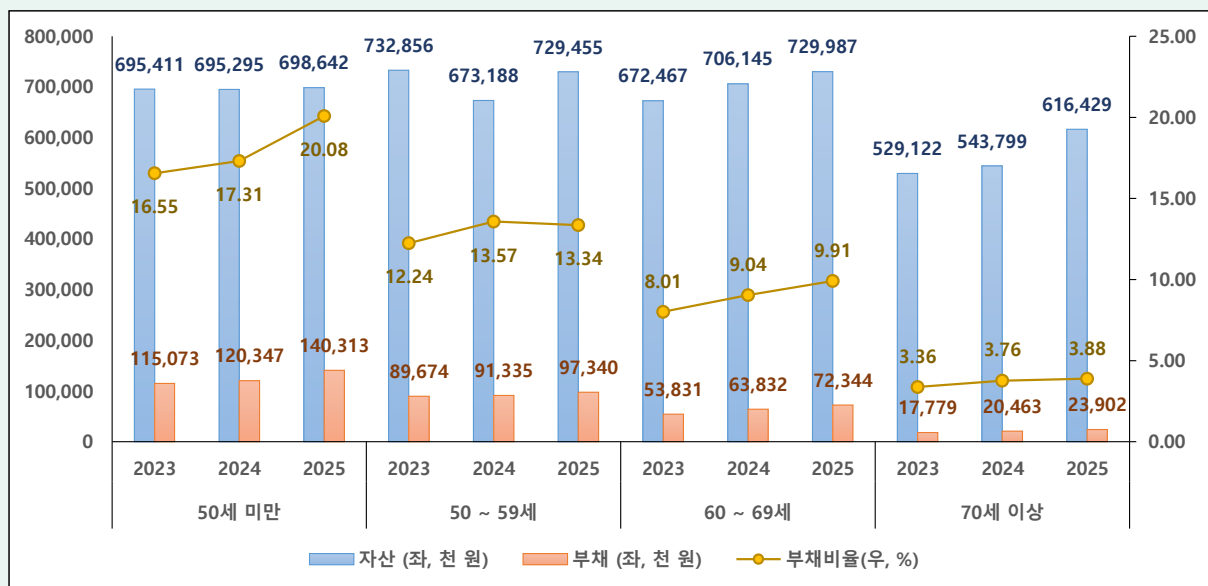
6)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 12. 4.),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참고하여 작성.

경영주 연령별 부채 부담

Ⅰ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부채비율 가장 가파르게 상승, 평균의 2.8배

- 202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개편 적용 이후 3년간(2023~2025년)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부채비율은 16.55→20.08%로 3.53%p 상승하여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2025년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부채비율(20.08%)은 전체 농가 평균(7.20%)의 2.8배, 70세 이상 농가(3.88%)의 5.2배에 달함.
- 같은 기간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자산은 6억 9,541→6억 9,864만 원으로 정체된 반면, 부채는 1억 1,507→1억 4,031만 원으로 21.9% 증가하여 부채비율 상승을 주도하였음.

〈그림 8〉 경영주 연령별 자산 대비 부채비율(202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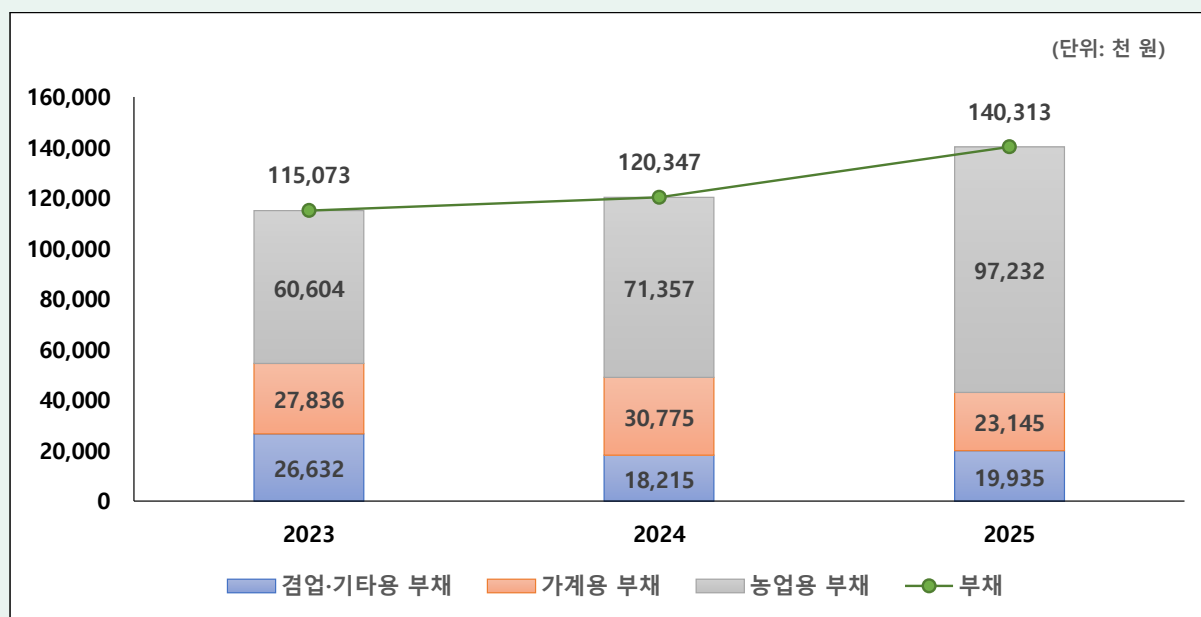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Ⅰ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부채는 농업용 부채에 집중

-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농업용 부채는 2023년 6,060만 원에서 2025년 9,723만 원으로 60.4% 급증하였음. 반면 가계용 부채(-16.8%)와 겸업·기타용 부채(-25.1%)는 감소하였음. 농업용 부채비율은 8.72→13.92%로 5.20%p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50~59세 +0.22%p, 60~69세 +0.81%p, 70세 이상 +0.30%p)를 크게 상회함.

-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농자·시설·기계 등 영농 자본 형성 과정에서 부채 누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영농 초기 자본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이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영농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부채 용도별 추이(2023~2025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04 시사점



Ⅰ 농업 본업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 점검 필요

- 농업소득 정체와 경영비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비용 보전보다 경영비 구조 개선과 농업총수입 기반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농작업 대행, 스마트농업 확산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실제 노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품목·영농형태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영비 관리만으로는 농업소득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취가격 안정, 계약재배 확대, 유통·판매 조직화,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위험관리 수단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략작물직불 등 수급안정 정책의 소득안정 효과뿐 아니라 품목 전환과 농가 수익성 개선 효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Ⅰ 영세·고령농의 소득안전망과 구조 개선 연계 필요

- 영세농의 농업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영농 지속 가능성이 있는 농가와 고령·준은퇴 농가를 구분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영농 지속 농가에는 공동이용 농기계, 농작업 대행, 공동판매, 소규모 고부가가치 작목 전환 등 농업소득 창출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준은퇴 농가에는 직불제·기초연금 등 소득안전망을 유지하되, 농지연금, 농지임대, 경영이양 등 자산활용형 소득보완 수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직불제는 단순한 확대·축소 논의보다 소득안정, 공익기능 보상, 수급안정 등 정책 목적별 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Ⅰ 5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진입 이후 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

- 청년농·후계농 지원은 농지·시설 확보 등 진입 단계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진입 이후 재무 안정성과 영농 지속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 공급 규모뿐 아니라 상환능력, 현금흐름, 농업소득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함.
- 공공임대농지, 선임대 후매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등 기존 지원사업은 초기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부채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임대형·단계형 지원, 장기 거치·분할 상환, 경영 컨설팅,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 수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061-820-2174 taehun@krei.re.kr
내 용 문 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59호

2025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9.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